



Art in culture

November 2020

Art Magazine

# 가족, 가깝고도 먼 공동체

가족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핍박하며 상처주고, 아득히 멀면 한평생 절절한 그리움에 사무치는 애증의 공동체. 분단의 비극을 겪은 한국사에서 이산은 민족의 트라우마다. 변순철은 실향민의 오래전 가족사진을 변용해 생이별한 이들의 상봉을 염원한다. 임흥순은 분단 이데올로기에서 소외된 이들을 호명하며, 리정옥은 재일조선인 3세로서 혈족의 의미를 고찰한다. 하늘이 갈라놓는 이별도 있다. 강운은 아내의 사망 이후 지독한 우울증에 빠졌다가 최근 마음을 치유하는 작업에 전념한다. 이진주는 아버지의 죽음과 세월호 참사를 연이어 경험하고 흑백 그림을 제작했다. 까미유 앙로는 '아픈 손가락'인 자식과의 마찰을 드로잉으로 표출하며, 노원희와 홍순명은 암울한 한국 사회와 가족 구성원의 갈등을 포개어 비춘다. 조던 카스틸은 흑인 초상화 연작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외부의 폭력에 대항한다.



변순철 나의가족, 김홍태 (어머니, 아버지),  
나의가족, 권영균 형제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5×130 cm 2015,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52×195cm 2015  
/ 사진에서 상행한 이산가족. 작가는 북에서  
은 실향민에게 오래된 가족사진을 받았다. '3D  
나이 변환 기술'로 노쇠한 부모 형제와의 재회를  
이루었다.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만 기억되던  
이들이 아픈 없는 곳에서 다시 만났다. 예술은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을까?



Art in culture

November 2020

Art Magazine



홍순명 혼란 믿음, 익숙한 오해-2023,  
혼란 믿음, 익숙한 오해-2015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94×259cm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30×162cm 2020 /  
작가는 어머니와의 불화를 이해하려 붓을 들었다.  
자신의 가족사진과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중첩한다. 가족이라는 집단을 뒤 흐르는 갈등의  
근원은 사회와 역사에 있다. 깨지고 갈라진  
화면은 가족 간의 '흔한 믿음'과 '익숙한 오해'가  
남긴 생채기다.